

Sermon Notes:

서론: 지구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
천동설 -> 지동설
우주의 광대함과 신비
과학이 아닌 진화론: 진화론자들의 믿음
보이는 것이 전부 아님

본론:

1. 욥기

- 가. 고난이 아니라 ‘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?’ 임
- 나. 38 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질문들
 - 네가 내 창조를 설명할 수 있느냐?
 - 네가 내 창조를 감독할 수 있느냐?
 - 네가 내 창조물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?
- 다. 하나님의 질문에 어느 것도 대답할 수 없어 침묵
 - 욥의 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 (비교: 26:6)

2. 오늘날의 과학

- 가.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우주의 신비를 많이 밝혀냄
- 나. 여전히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음

결론: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이신지를 알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.

암송구절: 욥기 38 장 4 절

‘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?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’

메모:

1. 자신은 우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?
2. 어머어마하게 큰 우주가 우연히 생겼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규칙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?
3.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는가?
4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씨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?